

로컬뉴스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노인 교통사고 예방나서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 서림지구대(지구대장 강종삼)는 행 안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마을 이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라는 등의 보이콧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서림 지구대는 이날 이장들에게 봄철을 맞아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관공서 사칭 및 물품 보관함에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는 등 최근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이콧 예방 주의사항을 알렸다.

특히 서림 지구대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보이콧으로 인해 한 분의 피해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 캠프방송 등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종삼 지구대장은 "어르신 교통사고 및 보이콧 예방을 하려고 전 직원들이 전력 안전하고 행복한 부안민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IT새만금 우표·맞춤형 엽서 발행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미래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 개발사업"을 널리 홍보하고자 내달 3일 IT 『새만금 우표』 및 맞춤형엽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발행되는 『새만금 우표』는 시트형 우표(우표 6장, 사진 1장)로 새만금 방조제 및 내부개발사업에 대한 미래의 국제 관광 도시의 테마별 이미지로 구성되었으며 맞춤형엽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스마트폰으로 우표와 엽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새만금사업 홍보동영상을 볼 수 있어 내·외국인 및 기업투자유치 등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태 기자

김제시 성산공원 회전교차로 추진

김제시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성산공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제 성산공원사거리에는 현재 신호운영을 하지 않는 교차로로 그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한곳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의 협조를 받아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인안전처와 한국교통연구원 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0%에서 최대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김제시에 도 7개소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교통 안전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며, 교통흐름에 있어서도 순기능이 많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부안 낚시어선 안전위반 집중단속

부안해양경비안전서(총경 전현명)가 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 어선의 안전 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 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舊·낚시어선법)은 지난 '95년 어항기 어민 소득 증대, 어촌 관광의 활성화 및 낚시 레저객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낚시 어선들은 여타 다중이용선박보다 다소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어 낚시 어선의 안전 사고예방 차원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행복주택 600호 건립 확정

첨단과학산업단지 안에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보급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 1만4천500㎡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600호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바 있는 '정읍 첨단산단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최근(4.22.)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확정에 따라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양촉진과 주변 활성화는 물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3대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모 당시 300호로 계획된 공급 세대수를 잘라 신규 수요와 주변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600호로 증설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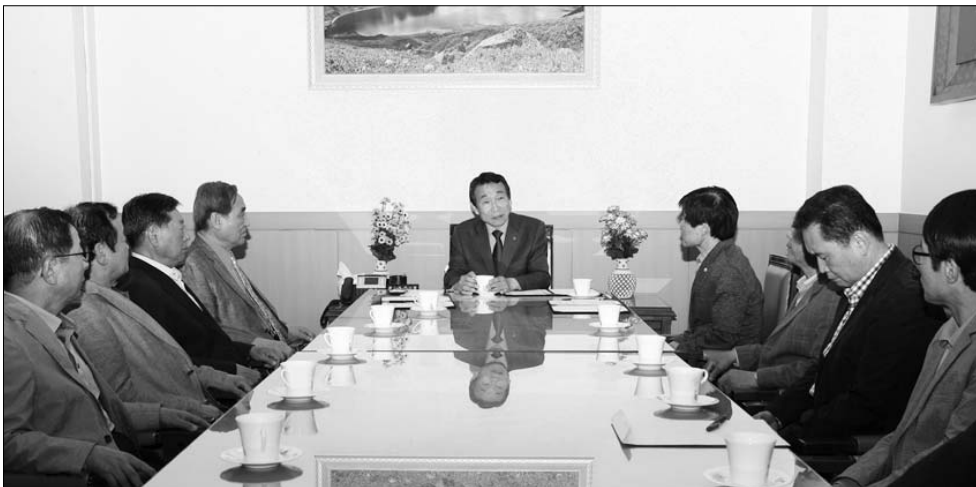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職住近接)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고,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토록 계획된 주택단지이다.

'정읍 첨단산단 행복주택'은 정읍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연구·교육기관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이다.

특히, 시가지와는 약 7km 정도 떨어져 있고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1호선과의 접근성이 양호한데다 KTX 정읍역과도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직주근접을 충족시키는 입지조건과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사항 이행 등 각종 절차이행 기진을 단속 계획기간인 2019년 상반기 내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주변 3대 국책연구단지 활성화와 함께 잘래 정읍시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생기 시장과 이재만 새만금사업단장 황종석새만금사업자 건물주대표는 이날 시장실에서 '새만금 임대료 안정화(중액유보 등) 협약서'에 서명했다.

정읍 새암로 상가 임대료 안정화 협약 체결

2025년까지 인상 않기로

27일 정읍시 원도상인 새암로 상가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식이 있었다. 김생기 시장과 이재만 새만금사업단장 황종석새만금사업자 건물주대표는 이날 시장실에서 '새암로 임대료 안정화(중액유보 등)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시와 상인회 상가 건물주들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건물주(새만금사업자

변영환) 28명이 동참했고이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건물주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상업 활동을 위해 2025년까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서는 ▲새암로 상인회와 시는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새암로 상가 건물주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상업 활동을 위해 2025년까지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시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상인회 및 상가 건물주의 노력에 대응 새암로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한 달 동안 열린 '정읍 도시재생 대학'에 상가 변영환위원들이 참여해 주민 주도의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구 노력을 기울인 끝에 거둔 결실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즉 임대료 급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 해나간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련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수박연구회원인 김경태씨가 생산한 씨 없는 수박 7톤이 지난 27일 수출길에 올랐다.

정읍씨 없는 수박 일본으로

단품미인 브랜드로 가을까지 수출

정읍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이 올해부터는 봄부터 가을까지 일본으로 수출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일본의 연휴기간(4.30 ~ 5.8) 판매를 위해 정읍시수박연구회원인 김경태씨가 생산한 씨 없는 수박 7톤이 지난 27일 수출길에 올랐다. 이번 수출 수박은 정읍시산 자유농장에서 엄격한 과정을 통해 무게 6~8kg, 당도 11브릭스 이상만을 선정한 것으로 까다로운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정읍의 씨 없는 수박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수박축행사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가을 수출 수박도

큰 성공을 거뒀다. 김경태씨는 매년 정읍에서 가장 빠른 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2014년~2015년도 수박 탐과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박재배기술교육과 현장교육 등에 적극 참여해 고품질 향상과 신기술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에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봄에도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기 위해 SWT(Seedless Watermelon Technology)꽃가루와 전열선 등을 지원하고, 매주 1회 농가를 방문하여 온도관리요령과 병해충방제 기술 당도향상 기술 지도에 힘써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마실일사천리' 우수사례 발표

행정안전부·전북도 주최 '정부 3.0국민 체감 토론마당' 서

부안군이 국민 행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행정안전부·전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부3.0 국민 체감 토론마당'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27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북도민과 함께 하는 정부3.0 국민 체감 토론마당'에서 홍윤식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군의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우수사례로 발표돼 갈채를 받았다.

정부3.0 국민 체감 토론마당에 전북도 2건, 전주시·부안군 각각 1건 등 4건으로 전북지역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안군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이 전기·전화요금 등 30여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받으려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청절차를 한 번으로 대폭 간소화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실 일사천리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지난 2014년 기관 우수협업사례로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생애주기 공모사업에 응모해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구축, 국민의 편의·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with prices for different sets.